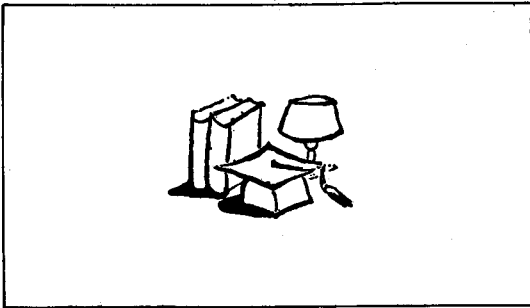


“물”이 아니면“기름”이어야 한다.!

—環境專門紙·誌를 말한다—

(2)



朴 昌 根 <(社)環境教育會 委員長>

지난 호 本誌 칼럼을 통해 筆者가 環境專門紙·誌를 말하자 많은 環境人으로부터 격려와 제안이 들어왔다.

그것은 環境 문제가 多樣化, 復雜化, 深化되면서 늘어난 環境言論에 대한 環境人의 반응과 평가였다.

“朴선생님의 칼럼을 읽고, 그러지 않아도 많은 환경소식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유감이였었는데, 바로 보시고 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해 주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環境言論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環境保護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環境危機 의식만을 내세워 安保的 차원의 國家 시책을 비판하거나 社會 혼란적 측면만을 제시하면 그것은 環境保護가 아니라 또 하나의 國家公害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이곳 〇〇市에서는 環境言論에서 왔다고 하는 者들이 告發 云云하면서 광고비 명목의 金品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한심한 것은 새로운 정보의 매체인 環境言論이 거의 비슷한 내용을 판박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느 教授의 論文(權肅杓 박사의 「漢江綜合開發이 水質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環境專門紙·誌(「주간 생활환경」 「환경보전협회보」 「자연보존」 「환경과 공해」 「공해대책」)에서 글字 하나 틀리지 않게 똑 같은 內容을 반복해 게재하고 있는 것은 言論公害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筆者 부족 현상은 이해합니다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等等……

이렇게 環境保護의 중요성을 감안해, 環境專門紙·誌가 보다 뚜렷한 性格과 方向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環境人들이 異口同聲으로 의견을

보내왔다.

솔직히 말해 그동안 環境言論은 不可侵의 聖域(?)과 같은 자세를 취해왔다.

이것이다 하면, 이것인 줄 알아야 했고, 저것이다 하면, 저것인 줄 알아야 했다. 그것이 한국적, 言論의 힘이었다. 그래서 그 힘을 옹운 곳에 발휘할 수 있도록 이 글을 쓰는 것이다.

분명히 밝혀두는 것은 筆者가 環境專門紙·誌를 말하는 것은 결코 누구를 때리려거나 어떤 私心이 있어서가 아니라, 言論의 중요성을 認識하고 있는 前言論人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地球의 環境, 특히 이 나라의 環境이 保護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 環境人의 한 사람으로서, 言論이 環境問題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해 眞實과 勇氣를 호소하는 것이다.

흔한 말로 良藥은 입에 쓸수도 있다. 그러나 事實을 바로 못 보고, 眞實을 외면하는 重病일 경우에는 입에 쓴 良藥이 아니라 살을 도려내는 수술로도 치유할 수 없을 것이다.

더 늦기 前에, 실수는 솔직히 시인하고, 부족한 것은 바로 채워야 言論이 살고 環境이 쾌적해진다.

月刊 公害対策

〈創刊 1970년·發行者 編輯人 朴商濂〉

우리나라 環境專門紙·誌 중에서 가장 오래된 環境專門 雜誌다. 1970년 創刊 이후 오늘까지 發行人이 다섯번이나 바뀌는 어려운 경영에서 얼마 前('86년 12월호) 지령 100호를 맞이했다.

이는 이 나라 環境史에 뿐만 아니라 專門雜誌史에서도 획기적인 한 章을 이루는 쾌거가 아닐 수 없다.

「公害対策」은 그동안(1970년~1985년) 隔月刊 발행으로 이 나라 環境 분야중에서 특히 技

術工學的 측면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물론 Data의 非公開, 資料의 빈곤, 研究의 어려움 때문에 國內 學者들의 國內技術工學 研究論文보다는 海外 學者들의 研究論文 특히 日本의 「公害対策」誌에 게재된 論文을 그대로 번역 소개하는 부끄러움도 서슴치 않았으나 그 또한 이 나라 公害防止, 対策에 이바지한 바 있었다 評價하는 것은, 環境保護 분야에서 技術工學 対策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이며, 또한 技術工學 対策이 황무지였던 이 나라 環境保護 분야에서는 先驅者的, 獨步的 존재였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거 公害의 “公”字도 環境保護의 “環”字도 낫설던 시절에 돈도, 명예도 없이 다만 앞서가는 環境保護 意志 때문에 어렵게, 어렵게 「公害対策」誌를 밀고 가던 故 崔潤根씨를 기억한다.

그리고 崔潤根씨의 作故로 發行人을 잃은 「公害対策」誌의 운명을 안타깝게 여겨 이를 거두어 發行한 綠苑出版社의 徐泳斗 前 發行人의 義理도 잊지 못한다.

이렇게 「公害対策」誌는 어렵기만한 環境保護의 길, 그중에서도 가시밭 길인 技術工學 対策을 위해 20년의 세월을 걸어 온 것이다. 그래서 內容이 어떻고, 編輯이 어떻고 따지는 것조차 배 부른 녀두리였던 과거였다.

그러나 이제는 더 좋게 바르게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따져 보는 것이다.

「公害対策」誌는 1986년 「이식産業株式会社」 대표인 朴商濂씨가 그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크게 변모했다.

20년 동안 隔月刊 발행으로도 힘들어 缺刊에 合併号 등으로 허덕이던 雜誌를 과감하게 「月刊」 발행으로 再出發시켰고 內容에 있어서도 技術工學 專門에서 環境時事, 批評, 계몽, 교양 등으로 多變化시켰다.

분명, 이는 획기적인 變革이다. 이로써 이 나

라에 環境專門 商業 月刊誌가 出帆한 것이 되고, 또한 폭 넓은 環境專門 雜誌가 등장한 것으로 된다.

그러나 「公害対策」誌를 그 누구 보다는 잘 알고, 아끼는 筆者로서는 이런 획기적인 變革을 무조건 반가워 할 수만은 없다.

솔직히 말해, 한국의 專門雜誌界의 實情으로 볼 때, 「公害対策」誌의 月刊 발행은 그동안 「公害対策」誌가 가늘게, 길게 기회(專門雜誌가 商業的으로도 자리를 잡을 수 있는 社會的 風土)를 관망하던 安定된 자세에서, 성급하게 굵게, 짧게 매듭지워 버리려는 무모한(?) 도전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筆者가 알기로는 「公害対策」誌 발행인인 朴商旋씨는 땅 짚고 헤엄친 獼富도 아니요, 雜誌를 발행 안하면 몸살나는 그런 活字에 神들린 사람도 아니다.

어렵게 公害防止 사업을 해서 얻어지는 적은 利益을 社會에 환원한다는 정신과 環境保護 그 熱病과 같은 使命感 때문에 어찌지 못해 「公害対策」誌를 발행하고 있는 분으로 안다.

그래서 이 나라의 商業專門誌 市場에서 公害対策이라는 아직은 非人氣(물론, 人氣를 바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特殊專門誌로 隔月刊 커녕, 季刊으로도 廣告나 誌代가 雜誌의 發行費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현실에서 特殊專門誌를 月刊으로 발행한다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는 노파심이다.

아니, 제작비 出血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環境專門 筆者가 부족한 현상에서 어떻게 月刊誌의 그 많은 원고를 채우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원고에 쫓기다 보면, 이것 저것 쫓아 심게 되고, 그러다 보면 글 같지 않은 글, 알맹이 없는 內容을 活字化하게 된다.

즉, 單行本用 論文 소개에, 引用과 참고뿐인 研究, 新聞記事 말 바뀌 실기 그리고 넛두리

같은 提言이 판을 치게 된다.

雜誌란 雜文을 신는 책이 아니다. 더구나 雜多한 內容을 다루는 책도 아니다. 雜誌를 쉽게 설명한다면 單行本과 新聞의 중간 정도의 책으로 單行本の 글과 內容 보다는 非專門的이면서 新聞 보다는 더 專門的인 글과 內容을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公害対策」誌의 變身중에서 제일 큰 變華은 內容의 多樣化이다. 그동안 「公害対策」誌는 어찌 되었건 技術工學的 측면에서 環境保護에 이바지 해왔다.

그러나 오늘의 「公害対策」誌 '86년 6월호부터 이번 100호 특집호인 12월호까지의 內容을 보면, 이 雜誌의 대상 讀者가 어느 계층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없다.

즉, 이 雜誌가 물을 말하는 것인지? 기름을 말하는 것인지? 뚜렷한 목표가 없다는 얘기다. 물이면 물, 기름이면 기름이어야지 물에 기름 탄 듯, 기름에 물을 탄 듯 異質的인 수단이 한 그릇에서 방황하고 있다.

雜誌를 발행할 때에는 먼저 그 雜誌를 읽어 줄, 읽어야 할 讀者가 어느 계층의 누구인가를 분명히 定해야 한다. 무조건 글을 읽을 줄 아는 모든 사람이라는 추상적인 대상은 專門雜誌에서는 용납되지 않는다.

과거의 「公害対策」誌 독자는 公害対策 전문가중 특히 技術工学 전문가나, 사업가, 工学 지망 학생들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公害対策」誌 독자층은 분명히 가릴 수가 없다. 環境에 관심이 있는 일반 大衆이라면 技術工学面은 쓸데 없는 둘러리요, 技術工学 전문가가 讀者라면 많은 誌面의 環境 계몽, 교양은 지나친 넛두리일 수 밖에 없다.

'86년 6월호부터 12월호까지의 記事 비중을 보면, 일반 環境 계몽, 교양이 70% 이상인데 비해 技術工学은 30%에도 못 미치는 비중이었다.

그렇다면 이는 마땅히 일반 大衆 계몽용 雜誌가 되는데 여기에 技術工学 전문 記事가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技術工学 전문지에 계몽과 교양의 記事가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겠으나, 일반 大衆 계몽, 교양지에 전문적 技術工学 記事가 30% 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다.

즉, 專門性 속의 一般性은 可能하지만 一般性 속의 專門性은 不合理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公害对策」誌는 하루 속히 雜誌의 性格과 方向을 분명히 定해 分명한 讀者층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筆者의 所見으로는 「公害对策」誌가 갈 길은, 아니 가야 할 길은 지금과 같은 内容도 아니요, 大衆誌도 아닌 순수한 技術工学 전문지의 길이라고 믿는다.

그것은 과거 20년 동안 「公害对策」誌가 技術工学 분야에서 이 나라의 環境保護에 이바지해 왔었다는 그런 감상적인 이유에서도 아니요, ... 또한 오늘의 여러 현실로 보아 技術工学의 대책이 그 어느 대책 보다 더 多急하고 중요하기 때 문에서 만도 아니다.

한때, 筆者는 現 발행인인 朴商濂 씨가 「公害对策」誌를 인수했을 때 「公害对策」誌의 進路와 經營을 깊이 논의한적이 있었다. 그때 筆者는 「公害对策」誌를 環境보호를 위한 일반 大衆용 계몽, 교육 잡지로 전환 할 것을 추천했다.

왜냐하면, 당시 筆者는 「公害对策」誌 經營者의 한 사람으로 참여한다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經營面으로 보아(廣告라던가, 雜誌 확장 등의 문제에 있어) 技術工学의 측면 보다는 일반 大衆의 측면이 용이하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즉, 技術工学 잡지가 팔릴때 까지는 雜誌 經營의 赤字를 最少化 해야 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公害对策」誌는 環境보호를 위한 일반 大衆용 계몽지도 아니고, 技術工学 전문지도 아닌 不明으로 방황하고 있다. 그래서 뚜렷한 讀者도 잡지 못하고, 赤字 폭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무엇인가 분명한 색깔을 위해 용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오늘날 環境問題가 社会的으로 크게 평가되면서 일반 綜合誌, 女性誌, 專門誌 그리고 學生誌에서까지 環境問題에 대한 폭넓은 계몽적 내용을 크게 다루고 있다. 또한 「生活環境」 및 「建設環境」紙 등이 大衆的 측면에서 環境問題를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技術工学의 측면에서 環境問題를 해결해 보이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물론, 대부분의 모든 環境言論들이 약방의 감초처럼, 技術工学을 조금씩 소개는 하고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소개에 그치고 있을뿐 진실로 技術工学으로 이 나라 環境問題를 해결해야겠다는 意志 표현은 아니다.

그래서 環境을 보호하자는 말은 풍성하지만, 실지로 그 해결을 위한 절실한 대책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筆者는 여기에서 「公害对策」誌의 朴商濂 씨에게 권유하고 싶다.

어차피 돈이 되지 않는(애초에 그런 기대도 갖지 않은...) 雜誌를 발행할 바에는 이것 저것 다 쫓아 담는 현재의 방향에서, 단 한편의 研究論文도 좋으니 이 나라 技術工学을 위한, 살아 있는 技術專門誌를 발행해 달라는 권유이다.

지금 우리들 주변에는 실력있고 훌륭한 環境 技術工學者들이 많다. 이승무, 윤명조, 조광명, 최의소, 신용배, 김수생, 유재근, 김희강, 오영민, 신석봉, 신정래, 김동민, 도갑수, 김희정, 신구철, 박경택, 이성호씨 등 外에도 이달우, 우종호, 김무남, 옥정권, 채우식씨 등 公害防

止 사업을 펴는 많은 분과 또한 일선 현장에서 技術工学的으로 環境을 지키고 있는 1~2급 環境 관리인도 1만여명이 넘는다.

그렇다면, 環境技術工學도 결코 외롭지 않다는 얘기가 된다. 필요한 것은 이들 工學者들이 소신껏 研究를 하고, 發表할 수 있는 紙面의 제공이며, 이를 받아 현장에서 活用할 수 있도록 하는 加교의 역할이다. 그것이 곧 「公害對策」誌의 義務며 使命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學者들에게 1년에 1편씩의 연구 과제를 부탁하라, 물론 충분한 연구비를 제공해야겠지만, 연구비가 적다고 거절할 環境技術工學者는 없다. 그래도 부족하면 公害防止 사업체에게 노하우의 조건으로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살아 있는 技術이라면, 그런 技術을 게재한 雜誌라면 일선 현장에서 새 技術에 목 말라하는 1~2급 環境 관리인들이 모여들 것이며, 大學에서 公害防止·對策을 공부하는 수많은 環境技術工學徒들이 다투어 雜誌를 구독할 것이다.

環境庁의 「환경 정책」을 장황하게 연재 하는 것도 좋고, 담배가 좋으나, 나쁘냐의 특집도 좋다. 어쩌면 여기 저기 써 먹은 「한강 종합개발 준공기념 주제발표」 논문을 다시 배끼는 것도 좋다.

그러나 活字는 영원히 남는 것이고, 未來의 環境이 좋아지지 않았을 때, 우리들의 후손들은 「公害對策」誌를 어떻게 評價할 것인가? 그래서 노파심에 당부하는 것이다.

다행히 「公害對策」誌의 編輯은 環境專門紙·誌 중에서 가장 뛰어나며, 일반 綜合誌의 編輯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감각적이며, 세련된 編輯 솜씨를 발휘하고 있다. 이는 編輯 담당자와 寫植, 圖案을 맡고 있는 寫植 담당처가 호흡이 딱 들어 맞은 결과로 보인다.

아무쪼록, 「公害對策」誌 지령 100호 發刊辭

에서 發行人이 다짐한바대로, “더 한층 분발하여 이 땅이 진실로 살기 좋은 터전이 될 때까지 環境의 보호, 보존과 公害의 철저한 추방을 위하여 분연히 앞장설 것을” 부탁하는 바이다.

그래야 「公害對策」誌가 發展하고, 그래야 讀者들이 環境을 정당하게 評價하고 그래야 이 나라의 環境이 쾌적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月刊 公害安全

〈創刊 1981년· 발행인 姜元敏 / 편집인 鄭泰虎〉

한마디로 批評, 批判의 여지도 없다.

環境을 保護한다는 것은 社會와 國家 더 나아가 地球를 책임진다는 숭고한 使命感이다. 그리고 글을 모아 雜誌를 펴내는 것은 社會를, 밝게하고 백성을 바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環境保護를 내세우기 전에 먼저 公人의 자세를 갖추어야하고, 雜誌를 발행하기 전에 먼저 公器의 참 뜻을 깨우쳐야 한다.

